

지역 메아리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 지원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금리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일 완주군은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규모로 10개 정도의 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대출 상당한 금리의 3% 이내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기간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한다. 용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2일 보건소1층 회의실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김제시에는 88대의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급성정지와 같은 응급한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멈추게 되고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전달하여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기이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김제소방서와 연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미 심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소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실제 위급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채소 건조사업 본격 추진

완주군, 사업비 66억원 확보... 자연그대로채소건조사업단 출범

완주군이 소비트렌드에 발맞춘 채소 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채소 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 달 31일 농산물을 자연그대로 건조하는 기술인 자외선저온제습건조(UVLTD) 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홍수출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단 '자연그대로채소건조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단장에는 김중기 전북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운영위원에는 최태환(취암넷대표, 김병숙 장북과대학 교수, 한숙경 은고올웨이푸드 대표, 김성수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를 선임했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조 가공 시설설치와 상품개발 등과 더불어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인 가구, 고품종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시간단축'과 '간편'이라는 농식품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조리편의제품, 과일 및 채소건조 간식 제품 등의 상품 개발을 주된 사업 방향으로 추진한다.



완주군이 소비트렌드에 발맞춘 채소 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마늘, 당근, 양파, 호박, 대파 등 다양한 채소류를 이용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매처 역할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업단은 생산자, 대학, 기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농가 교육, 제품 유통을 위한 원료별 최적 수분함량 표준화, 브랜드 개발 육성, 통합홍보 프로그램운영, 시제품제작, 공

동마케팅 등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중기 자연그대로채소건조사업단 단장은 "사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장 요구성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B2B, B2C를 공략하며 농산물 부가가치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축산산업 93억 투입 나서

우수능력우·조사료 생산·약취저감 등 78개 사업 추진

완주군이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8개 사업 93억을 투입한다.

지난 2일 완주군은 축산인들의 소득향상과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8개 사업에 93억49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수능력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낙농진흥사업 추진, 양돈·양계산업의 안전한 축산업 추진을 위해 안개분무시스템

지원, 양봉산업 및 기타가축 육성 등 31개 사업, 24억92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 생산장려금 지원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4개 사업에 21억64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제13회 완주전국민속속싸움대회, 제3회 완주만문화축제 개최, 학생승마체험 등 싸움소와 말(馬)산업 육성관련 6개 사업에 13억3700만원

을 투자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예방약품(16종),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사업에 26개 사업, 22억6500만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산분뇨 약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청정축산을 위해 11개 사업에 10억9100만원이 지원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완주군 축산인들과 소통하면서 더욱 더 발전해나가는 완주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교육개강

김제시 평생학습관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상반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3개 과정 32개 강좌에 536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였으며 2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주간 운영한다.

작년부터 실시한 추첨제로 인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수강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 5과목의 추첨을 진행하여 수강인원을 확정하였다.

취·창업에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

인 커피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등 6개, 산야초교실, 수채화 등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과정 11개, 파워요가, 유희 등 역량개발과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이간 교육과정 15개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압화공예, 프랑스 지수, 유희 과목이 신규 개설되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누구나 쉽게 체험 '점핑교실'

김제시 체육회, 3월 5일부터 신설 운영

'뉴스포츠'는 대회의 경기종목이 아닌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 종목으로 최근 중·고등학교와 각 지역별 센터의 건강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김제시 체육회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체육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2018년 생활체육 점핑교실을 운영예정이다.

1인용 트램폴린 위에서 평소 잘 쓰지 않는 코어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정신에 골고루 자극을 줄 수가 있으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트램폴린의 반동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장시간 운동해도 안전하게 유산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최대 매력이다. 이 프로그램은 3월 5일부터 신설 운영되며 참가대상은 성인남녀이다.

무료교실이며 수업은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민운동장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된다. 정원은 30명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 A반(월/수, 15명) B반(화/목, 15명)

앞으로도 김제시체육회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시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생산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50억원의 용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산업단지 분양을 증자에 따른 용자지원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50억원의 신규지원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용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본사가 있고 공장등록되어 1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용자금에 대한 3%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된다.

업체성격 및 지원여부 등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할 후 개별 통보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는 취급금융기관에서 2개월 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